COLUMN 칼 럼

건축의 도전

A Challenge to Architecture

金錫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eok-Cheol

현실적 여건에 마음 약하다 보면, 새로운 공간형식의 제안이 진부한 건축으로 전락할 수 있다.
건축은 한시적 주인보다 영원한 주인들에 대한 포괄적 의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역사에 참여하여 자기를 실현하려는 순수한 열정을 지녀야 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건축가는 도시와 건축, 전통과 현대의 이원합일을 자신의 공간형식으로 한 건축물속에 실현해야 한다.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에 서면 자만스럽다. 아무 이룬것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주어진 편한 입장을 사는 까닭이다. 이제 그러한 나태와 진부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 많이 버릴 수 있어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벽에 잠이 깨어 일을 하다가 지난 20년간 해 온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20대에 건축적 실험의 예언적 스케치를, 30대에 한옥이후 한국인의 주거를, 40대에 예술의 전당과 도시에의 건축도전을 시도했다. 이제 건축가로서 최고의 나이인 50대가 되었다.

일에 대한 집요함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실적 여건에 마음 약하다보면, 새로운 공간형식의 제안이 진부한 건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욕심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집념이 필요한 데 쉽게 현실과 타협한다. 건축은 건축주의 것이 아니다. 한시적 주인보다 영원한 주인들에 대한 포괄적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일 욕심보다 세속의 욕심이 크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이미 작가가 아니다. 세속적 처세는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욕심은 버리자. 명예, 부, 권력 … 이런 것에 연연하려면 건축을 버려야 한다. 역사에 참여하여 자기를 실현 하려는 순수한 열정을 지녀야 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높은 완성도를 향한 집념이 필요하다. 순간적 발상의 다양함과 완성을 향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몰두가 있어야 한다. 예언적 스케치만으로는 건축이 아니다.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비켜서서 그들이 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화두의 마련도 중요하다. 여럿이 함께 일 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의 아이디어를 공간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념을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한다. 개념은 언어형식이고 디자인은 시각형식이므로 남의 메모리가 개입되어서는 고유의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할수록 더 일이 많다. 미스의 디테일만한 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단계는 반복을 수 없이 거친 끝에 나오는 추상적 경지의 것이다. 현대건축이 갖는 몰시대성과 몰문화성을 어떻게 고유의 문명적 언어로 표현하는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토론되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어느 누구, 어느 시대와 다른 나만의 구체적 사상과 미학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가는 도시와 건축, 전통과 현대의 이원합일을 자신의 공간형식으로 한 건축물 속에 실현해야 한다.

유럽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한국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은 다르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도시와 건축이 갖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 주어진 부지와 주제의 해석을 스스로의 건축표현으로 실현하는 것이 건축가의 일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도시문명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건축표현 이전에 도시적 내용의 상당수를 건축이 실현해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꼬르뷔제의 건축을 보면 대부분 반세기 이전에 지어진 집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보다 더 오늘의 건축들이다. 그곳에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형식의 건축언어가 있다. 건축가가 시 · 공간의 상형문자로 인간과 그의 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공간에도 그의 눈부신 미술적 재능이 가득하다. 그러나 크게 느껴오는 것은 그의 건축이 뛰어난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서양건축사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건축은 서양건축의 부정으로 시작된 전위형식이었으나 오히려 가장 서양건축사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건축에는 내부공간이 있고, 공간의 상형문자인 형태가 있다.

발표되기 위한 건축과 도시와 마을에 더불어 역사적 실체가 되는 건축은 다르다. 우리는 전자의 건축에 익숙해 있다. 건축가는 여느 예술가와는 다른 본질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기의 것을 다하면 되지만 건축가는 역사와 사회에 구체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 시대에는 일그러진 우리시대의 영웅같은 건축이 많다. 새로운 현대건축의 대부분이 건축적 유희에 머물러 있다. 많은 건축의 새로움이 옛건축의 역사의식에 못미치고 있다. 아무나 건축을 할 수 있음은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도시는 도시의 역사적 실재를 이해하고 이를 증언할 수 있을 선택된 소수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문명도시가 있어온 것인데 돈 만으로 만들어진 최근의 건축은 대부분 민망스럽다. 위대한 건축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건축은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워야 한다. 최근 건축과 인테리어에서의 이론은 흐름이나 사조가 아니라 논리적 취향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미술적 감수성에 매인 채 언어의 논리와 수사에 매달린 독자적 세계의 불완전한 미술적 도전에 빠져있는 인상이다. 자기의 것을 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문명의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건축의 기반인 인간공동체이다. 이웃과 마을이 한 도시인 그런 건축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도시의 미래는 도시와 건축의 통합속에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적 의미를 가진 건물이 등장할 때이다. 도시란 자연과 역사와 생명이 한 실체일 때 시작되는 것이다. 도시적 메카니즘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도시적 메카니즘을 넘어선 실지의 도시인 건축이 등장하여야 한다.

한번도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카스텔 산 텔모에서 나폴리 전 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 산상에 산이 스스로 한 성이 되었다. 바위산이 허공으로 산화한 거대한 성채다. 성의 가장 위로 가면 하늘의 광장이 나타나고 기리코의 가로와 건물이 푸른 하늘 사이를 가로 지른다. 도시형식으로 만들어진 건축이다. 바로 이곳에서 나폴리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스파카 나폴리가 산과 바다를 도시 가득히 흡입시키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도시개혁의 아름다운 파괴가 불패의 성 산 텔모와 함께 나폴리의 한 명소를 만들고 있다. 서울의 산이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파괴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현상설계중인 박물관에 대해 생각한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일종의 범세계적 컬렉션인 루불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뮤지움과 다르다. 특정시대에 한정된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과 다르고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려는 북경의 고궁박물관과도 다르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이 지향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디서나 접근이 상징화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져야 한다. 마크로 스케일의 어프로치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 하고 도시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케일에서의 환경조정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토지의 이해와 주제의 해석이 각각 대위적 입장에서의 두 접근을 극명히 종합할 수 있을 건축의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언어형식의 시각형식전환을 시도하여 보편적이면서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공공장소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로 열려진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으로 열린 민족의 유전인자가 각인된 도시의 건축이어야 한다. 먼저 서울의 도시공간 공동체의 기본틀에 구체적으로 닿아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과거의 모든 시간으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형식이 아닌 시각형식의 장소로서의 특유의 시공간 형식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흐름과 서울의 그린네트워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의 회랑, 역사의 광장을 생각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인 역사적 실체를 시도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통성과 유전인자의 상징공간인 박물관의 역할이 21세기에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많은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은 현대미술관과 달리 역사적 미술품을 담는 곳이므로 그런 분위기와 성격에 맞는 기능적이며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 동선, 채광, 관리 등에 세심한 신경을 쓴다. 아름답고 독특한 공간이 오히려 반박물관적이다. 중앙박물관이 현대미술관과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미술의 장소라는 점이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시활동공간이다. 한국의 국가적 보물들을 위한 최고 최선의 전시형식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을 관람하기 위한 사람의 흐름 역시 크게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다. 다른 문화공간과 달리 역사와 고고와 미술을 시대별로 전시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전시형식과 동선의 체계는 미래 계획의 근본틀이 되는 것이다. 컬렉션에 따른 전시방식과 관리에 깊이 신경을 써야하며 무엇보다 역사적 가치와 경쟁하려는 무모한 공간 만들기를 피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기 보다 전시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원론적 논의와 함께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확장에 대한 대비이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움이 100주년 기념으로 계획한 마스터플랜이 올해 완성된 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5년 사이에 기존건물의 틀속에 두배의 면적을 확보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운 미래에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짓고자 하는 규모인 백만스케어피트를 증축하려 할 때 나온 말이 왜 증축하는냐, 지금도 충분히 크지 않는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증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70년 전 맥킴 미드 앤 화이트의 안이 증축되었을 때도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상징인 박물관은 아무리 커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립박물관은 한국역사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집합체이므로 끊임없는 발견과 창조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